

# 주민 주도 동네복지, 전주형 복지모델로

## 삼천2동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 동산동 '사랑나눔 공간' 등 정착

전주시가 삼천2동과 평화동 등 6개 시범 동에서 추진해온 마을과 주민 주도의 동네복지 정책이 전주형 복지 모델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동네복지 시범 동에서는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 등 복지플래너들이 위기가구 발굴 및 상담 등을 진행하는 한편 주민중심의 민관협력력을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웃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천2동은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비치된 냉장고에 반찬과 음식재료 등을 채워 넣고,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나눔 운

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동산동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랑나눔공간'에 쌀과 생필품 등을 자율적으로 채우고, 이를 복지플래너가 복지사가 대에 놓인 수요자들에게 전달해왔다.

인후동 주민들은 기부 받은 중고장난감을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세척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나눔운동인 '장난감 은행'을 전개하고 있으며, 평화동 주민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평화마을 맥가이버' 사업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밖에 서산동은 썬질방 후원업체에서 목욕쿠폰을 지원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간협력사업

인 '우리동네 힐링목욕탕', 송천2동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사랑의 과일나눔'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동네복지 6개 시범동 복지위원과 민간활동가, 관계공무원, 복지플래너, 사례관리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네복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강위원 광주 투게더 관산나눔복지재단 상임이사의 특강과 함께 시범동의 특화사업 및 향후 나아가 방향에 대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시범동 동네복지 관련자들은 지난 5개월 동안의 사업추진 중 어려웠던 점과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앞으로 동네복지가 나아가 방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유경제와 마을공동체인 은둔리공동체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동네복지 승패여부는 누구보다 주민들에게 달려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력을 통해 전주형 동네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동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동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에 앞서 전주형 동네복지 모델인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김영재기자



**꽃망을 활짝** 온연한 봄 날씨를 보인 17일 전주시청 앞에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 사이에서 시민들이 셀카를 찍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 도 민생사법경찰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 62개 업소 중 4곳 적발

개화기를 맞아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 환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가 어린이안전 및 청소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24일부터 3월14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기획단속에서 62개 업소중 4개 업소가 위생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제조기현이나 유통기현들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축산물 표시사항(제조기한 유통기한 등)을 변조하는 행위(1개소) ▲팽류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과자류에서 제품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행위(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행위(1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등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영수기자

## 양보 안해 보복운전 50대 검거

앞차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데 양심을 품고 1km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경찰청에서는 17일 앞차 운전자를 쫓아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45분께 다마스 화물차량을 몰고 전주진 진북동 진북초교 옆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B(37)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를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다음 달 17일까지 한옥마을 불법건축물 단속

전주시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불법건축물 근절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 내 위반건축물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건축물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불법건축물 단속부터는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로 강화하고, 영리목적에 의한 위반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상습적 위반 행위 등은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매주 월·목 저소득층 가정 방문 침·부항 등

전주시가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 돌보기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증가 등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중보건 한의사 2명과 한방개원의(2명 지원봉사),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전주시보건소 한방의료팀은 방문보건센터 등록자 중 거동

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뜸과 침, 부항 등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안복지관 등 관내 9개 노인 복지관을 격월로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팀은 진료 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북대병원 감마나이프 수술 1000건 돌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전북 지역 최초로 도입한 감마나이프가 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전북대병원 감마나이프센터(센터장 신경외과 최하영 교수)는 감마나이프 센터에서 뇌종양 및 뇌혈관기형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최첨단 의료기기로 머리에 상처를 내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뇌종양을 비롯한 각종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미치 돌보기가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병변을 치료하므로 뇌 주변 주위의 정상조직은 그대로 보호하고 병적 조직만을 파괴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감마나이프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뇌종양(전이성 뇌종양, 청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두개인두종, 뇌수막종, 교모세포종), 뇌동맥기형, 삼차신경통, 수전증 등이다.

/김영재 기자

## 전북 순환관광버스 주말 운행

### 내달 19일~12월까지 당일 관광 1만원 OK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가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주말마다 운행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14개 시군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테마형 당일 17개 코스(기본 8개, 생태 및 축제 9개)와 광역형 서울 및 부산 출발 1박2일 4개 코스, KTX 기차연계형 등 3개 상품으로 운행된다.

순환관광버스 운행은 전주 한옥마을, 무주 태권도원, 새만금 등 14개 시군의 관광지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도내·외 관광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는 광역 시티투어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차별화를 위해 운행 코스를 다양하게 마련 KTX 등 열차와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익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은 당일 관광 1만원, 서울 및 부산 1박 2일 관광은 9만7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btour.or.kr/>, <http://www.nambktour.co.kr/>) 또는 전화예약(1588-1466)으로 가능하다.

올해에는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행수단으로 순환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54회(7,369명)보다 20여회 증편한 275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패스트라인 구축과 연계해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사업이 관광객 중심으로 더 편하고 더 알차게 한 번 더! 버스 타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만족감 최고 관광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서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정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전문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더
- 저서: '365일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